

서론

201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5%, 2026년에는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2010)되고 있다. 도시화, 핵가족화 및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의 삶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송혜원, 2011), 노인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만 65~74세 노인의 자살률(2009년 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81.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철환, 2011).

노인문제로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심리적 적응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쇠퇴하는 시기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한다. 노년기의 상실은 청각, 두발, 근육 등과 관련된 생리적 상실, 배우자 및 친구 등과 맺는 관계의 상실, 일자리와 지위의 상실, 경제적 안정의 상실, 기능의 상실 등이 있다(노병일, 모선희, 2007; 김기태 등, 2007). 이러한 상실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노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아통합과 죽음에 관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자아통합이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수용하며 인생과정의 중심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것으로 정의

된다(Erikson, 1997). 즉, 살아온 삶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다. 여인숙, 김춘경(2006)은 노인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 미해결과제와 아쉬움을 표출하는 것이 자아통합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과거에 고착된 감정을 대화를 통해 표출하고 해석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도복름, 김영숙, 2003; 김지희, 2002)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의 많은 부분에는 죽음 불안이 차지하고 있다(최금주, 2009). 앞으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에게 자아통합을 통해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노년기의 심리적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노인문제의 실질적 대처방안으로 노인상담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김태식, 2006)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의 대부분은 상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곽수인, 2006)를 들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상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경제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가려져 심리적인 적응은 다음으로 미루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인상담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상담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장애요인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심리적 장애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상담의 실태와 요구를 살펴본 한 연구(문은숙, 2006)에서 노인 응답자의 50% 이상이 상담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있지만 전문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8%가 필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상담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전문 상담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상담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 기인되지만 노인상담이라는 상황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어려움 또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잘 표현하려 하지 않아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최명균, 2012)가 많으며, 상담자와 노인 내담자와의 연령 차이 및 인생 경험의 차이로 인한 상담자의 부담감(이효선, 2008; 권중돈, 2010) 등이 상담의 주요 장애요인이 된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상담자와 노인 내담자 간의 일종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의 해결이 노인 상담에서의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장애를 줄이는 방법은 우선 상담자의 연령을 노인 내담자와 비슷한 연령대로 맞추는 것이 될 것 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주제로 접근하거나 상담자와의 공통된 경험이나 가치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담에 대한 접근이 더 수월해 질 것이다. 이에 노인상담에서 꿈의 활용은 노인상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매일 밤마다 2시간 이상 꿈을 꾸다 (Moss, 2010). 꿈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김영건, 2004)고 볼 수 있다. French와 Fromm(1964)은 문제해결이라는 꿈의 기능을 중시하였으며, Adler(1956)는 꿈이란 인격의 통일성을 나타내 주고 또한 삶을 흔들어 깨우는 감정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경험이 된다고 하였다.

Perls(1970)는 꿈을 실존적인 메시지로 보면서 지금-여기에서 꿈의 각기 다른 부분들은 모두 인격의 단편들이어서 이러한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전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반면에 Jung, L.(2001)는 Jung은 꿈이 미래를 조망하고 경고를 해주는 예시적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꿈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미는 동·서양이 동일하고 그에 더하여 꿈에 대한 국내의 문화 정서는 해몽, 태몽 등 우리 전통 옛이야기나 살아오면서 들어온 꿈의 신비한 예지력 등을 믿으며, 특히 노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의미를 두므로 꿈 이야기는 상담 활용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지닌 주제이기도 하다. 그 장점들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상담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꿈을 꾸며, 꿈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크건 작건 꿈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과 꿈을 나누면서 자신의 꿈 해석을 시도하려 한다(Szmigielska & Holda, 2007). 이와 같은 사실은 꿈이 상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활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다.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담에 쉽게 접근을 하고, 상담 장면에서 노인 내담자가 쉽게 자신의 과거사나 어려움을 꺼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다 빠른 라포형성이 가능하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꿈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연령과 문화적 차이를 떠나서 쉽게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초기 상담에서 라포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라포형성을 위한 촉발도구로써 꿈은 노인 내담자

를 상담 장면으로 끌어들이 수 있고, 상담을 지속시킬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미해결과제의 단서를 제공한다. Jung은 꿈의 보상기능과 예시적 기능을 이야기 하면서 반복되는 꿈은 그것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개인적인 정신적 태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무엇인가를 말해준다고 한다(Jung, L., 2001). 즉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은 꿈의 내용에 미해결과제가 포함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꿈을 통하여 자신의 숨겨진 욕구표현이 가능하다. 꿈은 자신이 꾸기는 하지만 꿈의 내용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지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숨겨진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 꿈을 제3자의 관점으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숨겨진 욕구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지금현재 자신의 어려움이나 원하는 것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실은 꿈의 치료적 활용 가능성에 있어서 라포형성외에도 미해결과제의 확인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꿈의 내용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노인상담의 현실적인 활성화방법을 위해서 꿈의 부수적인 장점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꿈의 내용이 인격의 통합이고 현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노인들에게 일반적인 상담이 아닌 꿈을 활용한 상담 즉 꿈 상담을 한다면 두가지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신의 꿈을 해석 받는다는 의미에서 일반상담보다는 방어수준을 낮추어서 내방상담의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내방상담의 참여율 상승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꿈의 분석을 통하여 심리적 갈등의 급소에 신속히 도달하여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안이환, 2002)는 점이다. 시간의 단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부담을 줄여주어 상담의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노인상담에서 꿈의 활용 가능성의 탐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서 효과적인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반구조화 면접문항 구성을 통해 노인들이 생각하는 꿈의 의미를 알고 꿈을 활용한 노인상담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들이 겪는 꿈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꿈의 활용가능성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문항제작

노인상담에서 꿈의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면접 문항은 Hill(2004/2010)과 윤황, 이영호(2011)의 연구에 근거를 두고 제작되었다. 먼저, Hill의 꿈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압력 없이 현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의 연속물이며, 그 사람이 깨어 있는 동안의 사고와 기억, 감정, 행동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꿈의 의미는 꿈꾸는 사람 각자에게 매우 개인적인 것이

며, 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이해하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다음으로 윤환 등의 꿈이 한국인들의 공유된 정서와 집단무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남녀가 경험하는 꿈의 주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이 면접을 통한 꿈의 치료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 있으므로 꿈의 의미나 내용보다는 꿈에 대한 의미부여 및 상담 장면에서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면접문항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의 토론결과, 꿈에 대한 의미부여(전반적인 탐색), 꿈이 현실적으로 주는 영향(개인 영역에서의 꿈), 상담에의 적용가능성의 세 영역으로 결정을 하고 이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수집하고 12문항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문항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연구대상 및 문항 선정 절차

면접 문항의 확정을 위한 예비조사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S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자원봉사 중의 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묘사하였던 70대 남녀 각 1명씩 총 2명을 대상으로 예비 면접을 실시하고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축어록을 바탕으로 각 문항별 조사대상의 답변을 분석하여 연구자들과 외부 consultant의 수정과 검토를 거쳐 응답자의 유용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문항이나 모호해서 답변을 하기 어려워하는 문항 등에 대해 문항 삭제와 수정을 하였다. 예를 들면, 1번 문항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는 더 많은

표 1. 1차 면접문항

구 분	질문 내용
꿈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	1.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시는지요?
	3.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꿈	4. 가장 최근에 꾸은 꿈은 어떤 것인지요?
	5. 주로 어떤 내용의 꿈을 꾸시는지요?
	6.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으신지요?
	7. 꿈 때문에 잠을 깬 적이 있으신지요?
향후 상담에의 적용가능성 탐색	8. 꿈꾼 내용이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9. 꿈이 나를 이해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0.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신지요?
	11. 꿈의 의미를 알고자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지요?
	12. 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상담자에게 꿈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표 2. 최종 확정 면접문항

구 분	질문 내용
꿈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	1.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시나요?
	2. 꿈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3. 가장 최근에 꾸은 꿈은 어떤 꿈이었나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꿈	4. 주로 어떤 내용의 꿈을 꾸시나요?
	5.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으신가요?
	6. 꿈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7. 꿈의 내용이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향후 상담에의 적용가능성 탐색	8. 꿈이 나를 이해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9.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신가요?
	10. 꿈의 의미를 알고자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11. 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상담자에게 꿈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를 이끌어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삭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11문항이 확정되었고 표 2에 제시하였다.

예비면접 및 축어록의 분석을 통해 남녀 간의 보고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표출을 많이 한다는 결과(Jourard & Lasakow, 1958; 노경란, 1984)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기표출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학습된 행동을 말한다(정채주, 2001). 예비조사를 통해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꿈의 내용을 알고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 장면에서 꿈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활용의 타당성 검토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위한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조사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S노인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노인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연구대상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평균 74.6세로 60대 2명, 70대 9명, 80대 1명 이었다. 배우자 여부는 배우자 생존 3명, 사별 9명이었고, 평균 수면시간은 4.8시간, 꿈을 꾸는 횟수는 1달에 1~2회 7명, 거의 매

표 3. 연구대상자의 특성

No.	연령	배우자 여부	평균 수면시간	꿈을 꾸는 횟수
1	79	사별	5	1달 1~2회
2	75	사별	3~4	1달 1~2회
3	77	사별	4~5	1달 1~2회
4	78	사별	5	거의 꾸지않음
5	75	사별	5	1달 1~2회
6	80	사별	2~3	3~4달에 1번
7	75	사별	5	거의매일
8	74	사별	4~5	1달 1~2회
9	65	有	5~6	일주일 2~3회
10	60	有	7~8	거의매일
11	78	사별	4~5	1달 2~3회
12	79	有	4~5	1달 2~3회

일 2명, 일주일에 2~3회 1명, 3~4달에 1번 1명, 거의 꾸지 않음 1명이었다.

자료수집 및 절차

대상 선정은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여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12명의 연구대상자에게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연구 대상자가 긴장하지 않도록 가장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밝히고 연구 대상자의 동의하에 면접내용을 녹취 하였고, 녹취로 이루어진 자료에 대해 전사(Transcription) 작업을 통해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연구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꿈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반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면접은 본 연구진이 2012년 7월 11일부터 8월 30일 까지 ‘반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사

용하여 직접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개인적인 꿈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지, 향후 상담에서의 적용가능성은 어떠한지에 관한 탐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내적 경험을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온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채택하였다. CQR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팀의 합의를 통하여 언어를 숫자화 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성, 엄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질적 분석 방법이다. CQR은 면접이나 개방형질문지를 사용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현상들을 기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추론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석팀. 분석팀은 본 연구진을 포함한 3명의 합의팀(상담심리전공 박사 1명, 상담전공 박사과정 2명)과 1명의 감수자(상담심리 박사 학위 소지자로 상담심리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감수자는 자료 분석의 전 과정에서 합의팀의 작업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절차.

(1) 영역의 부호화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면접을 진행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완전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합의팀은 12개의 축어록에 대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각 사례에서 영역을 분류 후, 일치와 불일치 정도를 확인하고 차이점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결과 주제의 의미와 생성작업을 통하여 9개의 영역을 결정하였다.

(2) 중심개념 구성

모든 사례를 영역별로 분류한 후, 사례의 전체적인 맥락과 영역의 초점을 고려하여 간결한 용어로 요약하였다. 요약과정에서 요약자의 추론을 배제하고 연구대상자의 진술에 충실하였다.

(3) 영역과 요약 반응 감수

모든 사례의 영역과 요약반응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중심개념으로 요약된 표현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반영하는지를 검토하였다.

(4) 교차분석 및 교차분석의 감수

모든 사례의 영역 및 요약 반응이 확정된

후, 합의팀은 모여서 사례들 간에 유사성이나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주들로 묶는 작업을 하였다. 합의팀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시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묶인 범주에 대해 최종적인 이름을 붙이고 결정된 범주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시하였다. 이후 교차분석 자료에 대해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5) 안정성 체크

교차분석이 끝난 후 빈도와 새로운 영역이 생겼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빈도와 영역에 변화가 없어 결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합의와 감수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개의 영역을 추출해 낼 수 있었고 이는 3개의 중심개념으로 크게 묶을 수 있었다. 각 영역마다 11~12사례 모두에 해당되는 범주는 ‘일반적’, 6~10사례에 해당되는 범주는 ‘전형적’, 2~5사례 이하의 범주는 ‘변동적’으로 표시하였으며, 1사례에 해당되는 범주는 과대해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외하였다(Hill, 2011/2013). 이 영역들을 세 개의 상위 영역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노인상담에서 꿈의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하여 노인의 꿈에 대한 경험을 알아본 결과 크게는 꿈을 매개로하여 과거, 현재, 미래라는 타임라인(timeline)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각 중심개념 안에서 상담에서의 활용방안이 도출되었다. 과거에서는 꿈을 통한 삶의 경험 및 꿈을 대하는 태도, 살아오면서 문

표 4. 교차분석 결과

중심 개념	영역	범주	응답빈도
과거	꿈에 대한 태도 및 경험	삶의 지표로 삼기	전형적(9)
		덮어두기	전형적(7)
		태몽에 대한 믿음	변동적(3)
	미해결과제	주요한 인물과의 관계	일반적(11)
		사건/트라우마	변동적(4)
		소망 실현 기대	변동적(3)
상담에서의 활용	꿈 신뢰 유경험자의 연속성	전형적(6)	
	의미 있는 꿈의 재탐색을 통한 과거수용	전형적(6)	
	자신의 공로 인정 욕구	변동적(3)	
현재	꿈의 양상과 빈도	역할 변화에 따른 빈도와 기억감소	전형적(9)
		현재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꿈을 꿈	전형적(9)
	꿈의 실제적용 및 반영	꿈 신뢰를 통한 현실에서의 해결	변동적(5)
		현재의 의지와 결심 굳히기	변동적(3)
	상담에서의 적용	개인사 나눌 곳의 부재	전형적(8)
		꿈을 매개체로 하는 것의 수월성 상담 장면에서 자기개방의 용이성	전형적(6) 변동적(5)
미래	홍몽에 대한 태도	몰입하는 꿈의 주제(죽음, 질병, 자녀 등)	일반적(12)
		죽음 대한 두려움, 불안 자각	일반적(11)
		신앙에 의지	변동적(4)
	죽음에 대한 준비	노화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전형적(7)
		사후세계 예측	변동적(4)
	상담에서의 요구	남은 생의 문제 (거취, 질병, 금전, 죽음 등)의 준비에 대한 욕구	일반적(12)
어려운 꿈의 이해 욕구		전형적(10)	
비용부담 감수 의지		전형적(9)	

어두고 있었던 과거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현재에서는 노인들이 현재를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 보고되었다. 미래에서는 노인들의 주된 관심사인 죽음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중심개념 1. 과거

노인 참여자들은 과거 삶에서의 꿈에 대한 기억과 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꿈을 통한 자신의 경험과 오래된 미해결과제들이

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에 대하여 보고 하였다. 또한 과거에 대한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상담 장면에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고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역 1. 꿈에 대한 태도 및 경험

과거 노인들은 삶속에서 고민되거나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조상들이 꿈이 자신들이 믿는 초인간적인 세계와 관계하며 어떤 계시나 미래를 알려주는 것으로 믿었던(Freud, 1972) 것처럼, 꿈에서 지혜를 구했다는 보고를 하였다. 덮어두기는 과거를 억압하고 부정하려는 것과는 다르게 힘든 감정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회피의 개념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부정적인 정서 경험은 최소화하고 정적 정서 경험을 최대화하여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정서를 유지하려(유경, 민경환, 2003)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꾸는 태몽에 대한 의미와 높은 잠재적 기대(구본권, 1999)와 강한 믿음을 보였다.

삶의 지표. “답답할 때 꿈 꾀가 무슨 꿈이라도 야무지게 꾸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남한테 이야기는 안하지만 솔직히 또 이렇게 해석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해가 된다한다면... (중략) 우리 입장에서 나 클 때는 뭐 미신이라 그럴까 내가 많이 의지 했어요. 참 시골에서 이제 애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일까 어떻게...”(사례 #6)

“그리고 나면은(예지몽 같은 내용의 꿈을 꾸고 나면) 이제 그냥 또 저는 이제 짐쟁이 이제 뭐라 그럴까.. 그전엔 급하고 어

디 물어볼 데는 없고 이제는 내가 너무 안 좋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물어보고 이렇게... 꿈대로 좋겠구나 아니면..”(사례 #7)

덮어두기. “(옛날 힘들고 복잡한 꿈을 꾸면) 울컥했는데..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지워요... 근데 말이 있잖아요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말이 있는데..”(사례 #7)

“꿈에서 본) 좋은 이야기나 나쁜 이야기는 나 혼자 새기는 편이지 내가.. 힘든 그런 남들은 그러는데 제가 근데 내가 술 한 잔 먹거든요. 그러면은 막걸리 한 병 갖다놓고... 한 병 갖다 놓고 그거 탁 털어 놓고 라디오 하나 이거 탁 눌러놓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어지리하게 좀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까지 것 이 세상 이렇다 저렇다 어 오늘 못하면 내일도 하고 그래 막 청소도 막 하고 일을 해 버려요...”(사례 #5)

태몽에 대한 믿음. “머느리 얻어갖고 꿈을 꾸었는데 산골짜기 물이 이복서 산골짜기 내려가는데 호박이 두개가 물에 잠겼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돌을 써다 호박을 위에다 딱 놔뒀어. 물 안 묻게끔. 그런 꿈은 꿴어요.. 아들이야 근데 지금 그 애들이 둘 다 미국 가서 오년씩 있어요. 올해 대학하나 들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한 오년씩 됐어요. 이렇게 미국을 가서 저그들끼리 오년씩 있고 거기서 대학을 대니고 고등학교까지 대니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런 꿈도 꿀만하구나 이런 꿈은 잘 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딱딱한 돌.. 물

에 안당게 들을 올려놨는데 잘 끈거같애. 그 꿈은 꼭 성공할 것 같애.”(사례 #6)

“첫애 가져서 우리 친정에 있으면 냇가가... 그냥 막 물이 막 내려오고 그러는데 뱀이 그냥 많이 오더라구 그냥 많이 오는데 거기서 제일 굵은 뱀 하나가 딱 이렇게 오더니 그냥 내 여 발가락을 딱 무는거야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두갠데 피가 나더라고 깜짝 놀라서 깨니까 꿈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그래서 이렇게 두 번 이짜가 있으면.. 친정엄마가.. 넌 낳으면 딸은 없고 넌 아들만 낳는다 그래요.. 아들만 둘 낳았어요.”(사례 #7)

영역 2. 미해결과제

미해결과제는 인간의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인들의 경우 살아온 날이 많은 만큼 그들 속에 남아있는 주요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남아있는 감정들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또한 꿈에서 미리 예지해준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거나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기는 경우 이에 대한 한이 남아있음을 보고 하였다. Freud(1972)에 따르면 꿈에서 평소에 바라거나 염려나 걱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노인들 역시 평소 간절히 소원하던 것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하는 소망 실현에 대한 기대를 보고하였다.

주요한 민물과의 관계. “남편만 꿈에 봤다 하면 그냥 내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뭔가 서러운 일이 생기더라구 (중략) 살면서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래도 남편

한테... 내가 남편한테 잘 못했으니깐... 나이가 어렸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이고 내가 남편한테 잘 하지 못해서 내가 죄받아서 그러구 사는 거야 ”(사례 #1)

“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난봉꾼이었어. 난봉꾼이래서 내가 아버지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랬는데 (중략) 아버지는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아버지를, 옛날에는 아버지는 존재도 싫어했어, 내가.. 못 돼가지구. 그랬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그래도 어려서 잘 못해주셔서 이렇게 아마 돌봐주시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사례 #2)

사건/트라우마. “목욕탕에서 목욕을 꿈에 목욕을 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그 물살에 수채로 쏙 빠져 떨어져 들어갔어요. 나이 스물 몇 살 때 아직 기억해요. 그 쏙 빠져서 인제 음.. 꿈에 그 목욕탕에 물 빠면 쓰르룩 빠져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물살에 애기가 수채로 빠졌는데 그러고는 깨버렸어요. 깬데 몇 개월 만인가 하여튼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큰 우리 큰... 큰 아들을 태어나서 얼마 됐나 없애버렸어요. 태어나서.. 그게 지금 그게 하마 참 병원에서 태어났으면은 그 마 이 나쁜 물(태내의 양수)을 안 먹었겠지. 내 생각은 지금 물을 잘못 먹어서...”(사례 #5)

“둘째 애는 우리.. 냇가에 가더니 큰 강물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아주 저기서 그냥 큰 잉어가 그냥 막 잉어가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

게 집었어 집는 순간에 어머 그 잉어가 .. 붕어가 아니라 그 왜 수염 많이 난거 있죠 그거 (중략) 징그럽잖아 아우 깜짝 놀라면서 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잉어면은 딸이래요 그게 아들이래는거야 그래서 이게 개가 안좋더라구요 안좋고 개가 **쪽으로 대학교까지 보내고 저기까지 했는데 심장마비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불안한 거지....”(사례 #7)

소망 실현 기대. “근데 난 꿈에 어머니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내 어머니께서 살 때 돌아가셨대 나 낳고.. 그니까 내 소원은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나 닭았을 나하고 비슷하겠지 모양이 비슷하겠지 그리고 내가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요.”(사례 #6)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언니들한테는 한번도 안다녀 가셨는데.. 나한테는 그때.. 돌아가시고 얼마 안되서.. 한번 오셨었거든요. 언니들이 니가 막내라 걱정이 돼서 오셨나보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랑 내가 제일 사이가 좋았거든요.. 이제.. 언젠가래도 한 번 더 (꿈에서) 봤으면 좋겠어요.”(사례 #10)

영역 3. 상담에서의 활용

노인들은 꿈과 관련하여 자신의 꿈에 대한 경험 및 미해결 과제들을 보고함과 동시에 이러한 경험과 미해결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좋을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보고 하였다. 꿈 신뢰 유경험자의 연속성은 젊은 시절 꿈에서 지혜를 얻고, 이를 믿고 행동하였던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꿈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경험 탐색을 통한 수용을 하고자 하는 보고도 하였다. 노인들은 자신이 이룬 공로에 대한 인정을 Jung, L.(2001)이 말하는 일상생활, 현재와 관련된 꿈의 보상적 균형 작용처럼 꿈을 통해서라도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꿈 신뢰 유경험자의 연속성. “인제 내가 그거를 사업이라고 하니까 항상 꿈을 꾸면 신경을 써. 그 꿈이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거덩. 그런데 좋은 꿈은 이리다 보면 옛날 얘기가 다 나오는데 (중략) 지금도 꿈을 항상 꾸는 거야, 내가”(사례 #2)

“나는 꿈이 대체적으로 잘 맞아요, 내가 기억하기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내 꿈의 60%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의..”(사례 #8)

의미 있는 꿈의 재탐색을 통한 과거의 수용. “생각나는 거는 꿈을 꾸면 약간 비치지. 비치기는 비치는데 그거 뭐 내가 지금 와서 굳거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럼 그렇잖아 그러니까 흘러보내지 기억이 내가 유심히 꿈꾸는 거를 생각을 하고 누구 말마따나 분석을 한대나 인제 왜 이런 꿈을 꿨나 하고 신경을 쓰면은 꿈에 대한 과거가 뜨문뜨문 나오잖아.”(사례 #12)

“자고나면 아...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거. 말하자면 추억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현실을, 아 그러면 참 그랬구나, 그 꿈이 이

상하다, 신기하다... 그런데요? 아 꿈이 참 희한해요”(사례 #5)

자신이 이룬 공로에 대한 인정. “이제... 이제 서른네 평짜리 살았는데, 아들이 이제 우째 해서 오십 평짜리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작년에... 그래 작년에 갔는데 (중략) 우리 영감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손을 딱 잡고 하아얀 상복입고, (중략) 오십 평이 얼마나 넓어요. 쇼파에 앉아갖고.. (중략) 두 분이 또 손을 잡고 스프르륵 우리 큰아들 방에 거도 갔다가 또 한 오 분 쯤 있다가 스프르륵 나가가지고 뒤로 고마 딱 딱 스프르륵 나가시뿌리요. 아 그 이상 하지요? 우리 영감님 돌아가시고 꿈에 한~빈도 안보이드니 우리 아들 이사 갔는데, 나 그게 너무나 신기하데요.”(사례 #5)

“아 좀 말씀 좀 더 드릴건데. 내가 이렇게 또 아버님 애들하고 손주들도 다 못보고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결혼한 것도 못보고 돌아가셨는데. 또 제가 이제 사는 얘기도. 고생하고 있던 이런. 지금 현재 아빠가 안계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라.”(사례 #3)

중심개념 2. 현재

현재 노인 내담자들의 꿈에 대한 태도에 있어 꿈을 꾸는 횟수와 꿈에 대한 기억의 감소, 꿈에서 암시하는 내용을 현재에 적용하고, 꿈을 통해 상담 장면에서 쉽게 다가가고 임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영역 1. 꿈의 양상과 빈도

Freud(1972)는 낮 동안 겪은 경험의 잔여물 혹은 자극의 침전물들이 꿈 형성의 기본재료가 되며, 꿈-망각(Traumvergiessen)에 있어 그 자극이 미미한 경우 쉽게 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노인들은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의 역할에서 이러한 책임을 내려놓고 보다 편안한 조부모의 역할로 변화함에 있어서 역할의 변화에 따른 꿈의 빈도와 기억감소, 현재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꿈꾸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역할의 변화에 따른 빈도와 기억감소.

“지금이야 내가 애들 다 키워서 내보내고 먹고 사는데 옛날엔 내가 별어서 다 했지만 지금은 돈 버는 건 없잖아 취직이란 건 상상도 못해 그런데도 잠이 안와 내가 뭘 걱정이 있어서 근심이 있고 그러면은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자지만 (중략) 꿈이래는 건 그전엔 더러더러 꿴데 아까 꿈 얘기 해서 야 내가 근래 무슨 꿈을 꿴냐 하면 꿈이 없어”(사례 #12)

“난 젊어서 꿈을 꾸더니 지금은 꿈도 안 꾸고 깬다가 눈만 딱 뜨면 하나도 몰라. 기억이 하나도 안나 지금은.”(사례 #4)

현재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꿈을

꿈. “우리 엄마가 노인병원에 입원해서 계세요. 그날 방문하고 와서 꿈을 꿴는데 그날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것 같아요.”(사례 #4)

“그거는 언제 그런 걸 꾸느냐 하면, 내가 볼 때.. 조금 되~게 힘들다던가.. (음..)

또 어떨 때는요, 괜히 혼자서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사례 #8)

영역 2. 꿈의 실제 적용 및 반영

평소 미루고 있었던 일이나 기억하고 있었던 일들을 꿈이 자극이 되어 현실에서 해결을 하였던 경험과 죽은 이나 과거 후회되는 일에 대한 꿈을 꿈으로써 그 꿈을 통해 현재에 충실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됨을 보고 하였다.

꿈을 믿어서 현실에서 해결. “죽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꿈을 꾸고... 네 네 그런 뜻을,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산소를 네 쌍구, 이제 말하자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시할부지, 시할무니 네 쌍구를 좋은 데로 요번에 다 옮겼어요.”(사례 #6)

“커피를 무지 좋아했어. 제사지내고 나서 커피를 안올렸거든요 제사 지내기 며칠 전에 아주 영력해 얼굴은 안 나타나고 목소리로 우리 집 커피 떨어졌어? 그래요 깜짝 놀라서 (중략) 제사상 차리고 불 끄고 있잖아요. 그때 커피를 그래서 올렸어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요 얼굴은 기억이 안나도 목소리는 생생해요”(사례 #11)

현재의 의지와 결심 굳히기. “(죽은 친구 같은)그런 꿈을 꾸면... 사는 날까지는 되도록이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충실하게 봉사도 하고 가는 날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안 되겠다고 한 번씩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데 까지는 한다고”(사례 #4)

“옛날 일을 후회하는 꿈을 꾸면 가끔 벌떡 일어나서... (결심)하죠... 그때 내가 그렇게 안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그러죠. 우리 애들한테는 이리저 말아야지 이런 거. 그게 어떻게 잘 전해져주면 좋겠는가 뭐 이런 거죠..”(사례 #9)

영역 3. 상담에서의 활용

노인들이 고민을 남에게 말하기 싫어서와 어디서 누구와 할지 몰라서 상담을 망설이게 된다고 하였는데(김태원, 2010),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자신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도 이야기 할 곳이 없음과 특히 개인사나 가정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고 하였다. 또한 꿈을 매개로 하여 이야기를 했을 때의 수월성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개인사·가정사를 나눌 곳의 부재.

“어 누구한테 원래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혼자서... 또 누구한테 또 그런 얘기 또 특별히 할 필요도 없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중략) 그냥 꿈꾸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혼자서 그 ”(사례 #7)

“우리 가족하고 상관없는 일. 그건 주로 이야기하고. 가족하고 관련된 일을 잘 이야기 안 하죠. 가족 꿈같은걸 이야기 안한다거나. 힘겹게 놀아서 놀았던 꿈꾸잖아요. 우리 가족과 관련없는건 이야기하죠.”(사례 #9)

꿈을 빌어 이야기하는 것의 수월성.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내가 먼저 슬쩍 꿈

을 빗대서 ‘누가 이렇다’더라 빗대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지..”(사례 #9)

“그게.. 꿈.. 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편하죠.. 직접 이렇게 이야기할려면..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돌려 말하는게 더 쉽죠.”(사례 #10)

상담 장면에서 자기개방의 용이성.
“그렇죠. 한번 가서 물어볼 의향이 있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할 생각 있죠.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사례 #9)

“여기서 상담해 주시고 도움이 된다면은 할 수 있어요.. (중략) 예 꿈에 저거 해서 만약에 그게 알 수있다면은 도움이 된다면은 이야기 할 생각은 있죠.”(사례 #7)

중심개념 3. 미래

노년기 이후로는 평소 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특히, 신경을 쓰는 꿈의 주제가 있다는 것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있어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도움 받을 곳이 있었으면 하는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영역 1. 흉몽에 대한 태도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쇠퇴와 사회적 자극의 감소로 세상과의 정서적 관여를 줄이지만 (유경, 민경환, 2003) 이들은 자신의 죽음과 자녀들의 안위 및 자신이 질병에 걸림으로써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에는 여전히 관심을 보임으로써 이와 관련된 꿈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죽은 이에 대한 꿈은

노인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새롭게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나쁜 일을 암시하는 흉몽을 꾸었을 때는 신앙에 의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몰입하는 꿈의 주제-죽음, 질병, 자녀 등. “가까이 지내던 친목계 아줌마가 있는데 그이가 좀 일찍이 뇌종양으로 갔어요. 근데 그이가 가끔 보이면 그이가 갈 적에도 그냥... 그냥 억울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걸 봐서 그런가... (중략) 이상하게 그이 그 아줌마만 보면 막 감기가 가고 몸살이 가고 아플 적이 몇 있었어요.. 이렇다나도.....”(사례 #7)

“이렇게 얼굴이 확~ 노기가... 있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날 보고.. 애들을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중략) 그렇게 꿔었는데.. 이제... 우리 막내 녀석이... 친구들이 뭘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돈은 지가 대고.. 애가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돈을 5000만원을, 지가 지 돈도 다 아는데 그걸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도 나 모르게.. 그 애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아 그래서 잘 안보이던 양반이 그렇게 꿈에 계속 보였구나...”(사례 #8)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자각. “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날 그렇게 찾아, 그거는 아마 한 1주일이상 꿔을 꺼야. 그러더니 안 좋더라고요. 그냥 왜~이게 돌아간 양반이 보이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러나 그냥 그런 생각 (중략)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는 내가 몸이 약하니까 자꾸 그러는 분들이 보이구. 내가 갈 때가 까워

오니까 아마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자꾸 가깝게 오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사례 #1)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찝찝해서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 3일을 밖에 안 나갔어요. (중략) 내가... 그럴 때가 있는데 한 3일 동안을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이제..”(사례 #8)

신앙에 의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때 이제 꿈을 꿀 때는 한 이제.. (중략)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럴 때는 탁! 일어나요. 탁!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XXX를 가꿈 나가요. 나가면, 이제 한 번 씩.. 염주를 돌리고 그래요.”(사례 #8)

“저는 악몽 같은 걸 꾸고 나면은 그때 당시 딱 깨가지고 기도를 드려요 (중략) 스님이... 지장보살상으로 주셨어요. 그걸 받아서 tv에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기도드리고 그러거든요 (중략) 항상 나쁜 꿈이 있으면 기도드려요..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사례 #11)

영역 2. 죽음에 대한 준비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심리적 불안이 증가되고 있다(윤진, 1999). 이러한 증거는 꿈에서도 나타나는데 노인들은 자신들이 기력이 쇠하거나 몸이 조금만 이상하게 느껴져도 당시에 꾸는 꿈에 집중하거나 이러한 꿈을 통해 질병을 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죽은 배우자의 꿈을 통해 나타나는 암시에 대하여서는 사후세계에 자신이 머물 곳이 있다는 식의 해석을 보고 하였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먼저 간 친구들이 제가 아팠을 땐데 먼저 간 친구들이 어딜 가자고 그래요 어디를 쫓아 가는데 너무 빨리 가서 쫓아가질 못하겠어요. (중략) 차를 타고 딱 떠나더라고 차를 못 탔어요. 깨고 나서 그 차를 탔고 쫓아갔으면 갔을지도 몰랐는데 안쫓아갔기 때문에 살았구나. 간 사람을 쫓아 가면 안 좋다... 가만 보면 내가 좀 허약해졌을 때 꿈을 주로 꾸는 것 같더라고”(사례 #11)

“내가 요전에 내 한번 쓰러졌거든요 한 오월달? 사월, 오월 그 사이에 그랬는데 꿈을 그때는 매일 꿰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감기가 있고. 계속 돌아가신 분.. 아주 그렇게 그냥 뭐 각처 사람이 다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인제 나를 만나서 이렇게 어딜 가는데 앞에 하나 사람이 있고, 뒤에 하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섰고 내가 섰었어요. 그게 어딜 가는 거야. 가는 건데 가지는 않았어요. 그것까지만 꿈을 꿰어...”(사례 #2)

사후세계 예측. “부부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딜 가면 하나를 사는데 두 채를 짓는데. 하나는 지어서 팔고 하나는 지어서 우리가 살겠다. 이랬어.. (중략) 꿈을 꾸면 그런 집을 또 지어, 또 지어서 그 집을 가. 가서 보면 또 그 집이야. 그 집이 같 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마 이담에 갈 때 거기로 갈려나보다.”(사례 #2)

“갑자기 자다가 어느 아줌마가 아랫도리 새카맣게 입고 우에는 허영게 입은 아줌마가 막 이불을 걷어 치면서 이거 이불 달래요. 지가 덮은 이불을... (중략). 왜 달라하느냐 하니깐 “아유 나도 이제 이 이불 덮어야겠다고.” 우리 재들 아버지가 “당신은 왜 이불 안주요” 그러고 가더라고... 처음에는 아, 무슨 여자가 이불을 달라고 하나... 했는데.. 거기 가서 저승에 가서 결혼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사례 #2)

영역 3. 상담에서의 활용

중심개념 미래의 상담에서의 활용영역에서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남은 시간을 제한적으로 해석(유경, 민경환, 2003)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남은 생의 문제로 꼽고 있는 거취문제, 질병, 죽음 등에 관하여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반영된 이해가 어려운 꿈의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은 노년생활이지만 그래도 비용을 감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남은 생의 문제(거취, 병, 금전, 죽음 등)의 준비에 대한 욕구. “내 자신도 이제 내년이 80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걸 생각하고 살

죠. 난 그걸 생각하고 90까지 내가 만약에 산다면은 앞으로 내가 밥을 못해먹게 된다. 내가 혼자 살거든. 그러니까 어느 시설로 들어 가야되겠다. 내가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중략)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 마음의 준비.. 그거는 인제 내가 헐 과제다.. 그거는 앞으로 인제 다가오는 일이니까,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허영대고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 좀 생각을 해가지고.”(사례 #1)

“우리는 잘 모르니까 참 상담이 많구려 이런 상담 얼마나 좋아요. 많이 듣고 배우고 우린 이런 거 몰랐어요. (중략) 우리도 나이 먹어서 배 울건 좀 배우고 버릴 건 좀 버리고 이렇게 이러든 쓰것는데 그렇게 없잖아요 나이 먹어 노니까”(사례 #6)

이해가 어려운 꿈을 알아보고자하는 욕구.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야. 그 과정에서 막 바지 와 있는 거야. 그러든 내 인생의 짧은 인생이지만 심각하다구 꿈에서 이렇게 뭔가 자꾸 길을 준다 이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싶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거 해석을 못할 때는 꿈에 대한 해석 자료가 없잖아 우리는.. (중략) 특이한 꿈을 꿨을 때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나 뿐만 아니라 (알아보고 싶어 하지)”(사례 #12)

“이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꿈

이... 뒤범벅 꿈이 막 꾸일 때가 있는데...
알아보는 게 좋죠.”(사례 #3)

비용부담 감소. “머 비용은 머 거 물어보죠. 주교라도 그냥 머 그쪽에서도 좀 부담 없이 자그만큼 보상하든 될테죠. 서로 부담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러야 되잖아.. 이제 모르는 상태라도 그냥 모르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다만 점심값이라도 나오면서 성의표시로 (중략) 자주 만나면 금전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고 (중략) 시간을 내는 거는 인제 좀 가끔”(사례 #6)

“특이한 꿈을 꿨을 때는 그리고 싶은 생각이 나 뿐만 아니라 다... 지금 뭐 결혼 상담소도 있대며 그러니까 꿈에 대한 것도 그렇게 허트는 상담하는... 내 조카가 결혼 상담 그거 하고 있잖아.. (중략)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면 비용을 내고 들어야지”(사례 #12)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노인 참여자들은 과거 살아온 삶 속에서 꿈을 통해 삶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오래된 미해결과제나 현재의 어려움을 꿈에서 확인하고 현재의 삶에 반영하기도 하며, 남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욕구들이 이해가 어렵거나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꿈에 대한 해석을 받고자 상담 장면에서 보다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등 자기개방을 용이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이 생각하는 꿈의 의미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꿈의 활용가능성과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노인들의 꿈 경험을 통하여 과거, 미래, 현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꿈이 노인들의 전체적인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꿈의 경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타임라인에서 과거에 대한 범주가 현재에 대한 범주와 미래에 대한 범주보다 많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음에도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의 범주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노년기의 주요과제로 노인의 자아통합감이 있다.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하여 과거 및 현재, 미래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꿈이라는 소재는 노인들이 살아온 과거,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살아 가야할 미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해결과제와 죽음이라는 소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Freud(1972)는 정신이 가장 열성적으로 전념하거나 이전에 마음이 대부분 머물렀던 일, 이성이 좀 더 열심히 관심을 기울인 일 등이 보통 우리의 꿈속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과거의 미해결과제와 미래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꿈은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 미해결과제의 확인과 그것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수용을 도움으로써 그들의 삶을 재조직하고 재통합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죽음에 관한 부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가야할 곳이라는 생각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적인 죽음의 준비에 대한 부분은 보고가 적었다. 이것은 노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한 불안은 힘들어하지만 막상 죽음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측면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60세 이상 노인 50% 이상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고령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높다(정선남, 2005)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꿈은 이러한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표현하도록 돕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준비를 보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노인들이 현재를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많은 노인들이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우리의 옛말에도 노인은 과거를 먹고 산다는 말도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한쪽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삶에 대한 의미가 되새겨져 현재의 삶에 반영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꿈은 과거의 삶 중에서 집중하고 의미를 두었던 것을 재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이러한 힘으로 미래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꿈이라는 소재는 노인상담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노인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꿈은 상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가능하다. 첫 번째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으로 노인들의 내방면

접상담으로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김태원, 2010)는 점에서 꿈은 관심과 흥미, 호기심을 가지고 쉽게 상담 장면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상담에서 치료적 관계는 상담의 효과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주은선, 1998). 특히 상담초기에 이러한 치료적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꿈은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다는 공통점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상담의 라포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다양해지면서 노인 상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고 있다(김태원, 2010). 본 연구결과의 보고를 보면 노인들은 꿈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 낼 수 있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꿈이 노인문제 예방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의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꿈이라는 소재가 꿈 상담의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에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의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감수 의지가 전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꿈을 소재로 한 상담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상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이나 사회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있어서는 그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회기수와 시간적인 유동성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노년기에 들어서 꿈의 빈도와 기억에 대한 감소를 호소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의 꿈 활용에 있어서는 노인들에게 꿈을 잘 기억하도록 돕고 자신의 현재모습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꿈 일지 작성법에 관한 교육 및 꿈을 탐색하고 통찰하고 실행하는 구체적 꿈 모델의 접근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 꿈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한다면 상담을 받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만도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남성노인 및 성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꿈의 의미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꿈의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초기연구로 시도되었다는 점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곽수인 (2006). 노인의 생활실태에 따른 상담욕구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본권 (1999). 한국 어머니의 태몽과 태교: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비교.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5(1), 215-235.
- 권중돈 (2010).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기태, 최송식, 박미진 (2007). 노인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계.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36, 91-112.
- 김영건 (2004). 꿈에 대한 심리학적 및 생리학적 고찰.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희 (2002). 회상요법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식 (2006). 노인상담 서비스전달체계 인식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원 (2010). 노인상담 욕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경란 (1984). 자기노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병일, 모선희 (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7(1), 53-69.
- 도복름, 최영숙 (2003). 치매와 회상을 적용한 미술치료, 김천과학대학 논문집 29, 11-26.
- 문은숙 (2003). 노인상담의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혜원 (2011). 노인의 생활실태가 상담욕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이환 (2002). 상담에서의 꿈.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3-398.
- 여인숙, 김춘경 (2006).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2(2), 79-104.
- 유 경, 민경환 (2003). 노년기 정서 경험과 적

- 응의 특성: 정서최적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81-97.
- 윤진 (1999).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나눔의 집.
- 윤황, 이영호 (2011). 한국인의 전형적인 꿈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213-1229.
- 이효선 (2008). 노인상담과 연구. 서울: 신정.
- 정선남 (2005). 인생회고프로그램이 노인의 죽음 불안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채주 (2001).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노인의 자기 표출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철환 (2011. 8. 23). 2명 중 1명이 빈곤층... 노인 삶 OECD 중 최악. 2012.6.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3/2011082300194.html 에서 인출
- 주은선 (1998). 한국심리치료자들의 치료적 관계: 서구 문화적 심리치료자들과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39-56.
- 최금주 (2009). 노인의 영적 웰빙이 자아통합과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균 (2012). 노인상담에서 상담자의 역전이 경험.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1) 2010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Adler, A.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Edited by H. L. A. and R. Ansbacher. New York: Haper Torchbooks.
- Erikson, E. H.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French, T., & Fromm. E. (1964). *Dream interpretation: A new approach*. New York: Basic Books.
- Freud, S. (1972). *Die Traumdeutung*, in: Sigmund Freud Studienausgabe, BD II. hrsg. von Alexander Mitscherlich, angela richards und james strachey. Frankfurt am Main: S. Fischer Verlag.
- Hill, C. E. (2010). 꿈치료: 탐색·통찰·실행의 촉진.(주은선, 주은지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4년 출판)
- Hill, C. E. (2013). *합의적 질적 연구*.(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1년 출판). 미출판원고.
- Jourard, S. M., & Lasakow, P. (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6, 91-98.
- Jung, L. (2001). C. G. Jung. Traum und Traumdeutung.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Moss, R. (2010). 꿈의 힘: 꿈 우연 그리고 상상의 역사.(신현경 역). 서울: 수막새. (원저출판 2009년)
- Perls, F. (1970). Dream seminars. In J. F. Shepherd & L. Shepherd(Eds.), *Gestalt therapy now*. New York: Harper.
- Szmigielska, B., & Holda, M. (2007). Students'Views on the Role of Dreams in Human Life. *Dreaming*, 17(3), 152-158.

1차 원고접수 : 2013. 03. 30.

수정 원고접수 : 2013. 06. 04.

최종 게재 결정 : 2013. 08. 14.

A Research on the Dream Experienced by Elderly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dream in counseling elderly -

Eunsun Joo

Seolae Shin

Duks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using dreams in counseling elderly.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12 elderly were interviewed on dream experience. Based on the analysis, three core ideas, three domains in each core idea and 24 categories were drawn. In the "Past" core idea, "Attitude on past dreams", "Unfinished issues" and "Application in counseling" domains were retrieved. In the "Present" core idea, "Facets and frequency of dreams", "Reflecting the present", and "Usage of dreams" domain were drawn. Finally in the "Future" domain, "Nightmare", "Preparation of death" and "Request in counseling" were developed. Several suggestions were discussed for the possi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using dreams in counseling elderly.

Key words : Dream, elderly counsel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